

가와구치아사마 신사

가와구치코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아사마 또는 센겐(淺間)이라는 이름의 화산의 여신을 기리고 후지산의 분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후지산의 신을 모신 아사마 신사는 그 1 세기 이상 전까지는 후지산의 스루가국(현재의 시즈오카현)쪽에 존재했었지만,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로 북쪽 기슭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조정은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 쪽에도 새로운 신사를 건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지산에 대치하면서 가와구치코 호수 사이를 두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가이국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분화 피해 지역을 향해 절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신성한 나무가 늘어서 있는 참배길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신사의 경내에는 이 신사가 건립되기 전부터 서 있던 수령 1,200 년을 넘는 신목 삼나무 7 그루가 있습니다.

19 세기 초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산의 신 오야마쓰미노카미의 딸이자 꽃의 여신인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의 손자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우부야가사키 꽃에 있는 우부야가사키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에 열리는 가와구치아사마 신사의 예대제에서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를 태운 미코시(신을 태운 가마)를 우부야가사키 신사까지 옮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가 아들 부부의 출산 문안을 간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손자를 보러 간다는 뜻으로 ‘마고미 축제(손자를 보는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지고노마이 - 어린 아이의 춤

가와구치아사마 신사의 배전(참배를 위한 건물)은 좌우 2 채의 건물이 토방 광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아사마 신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전 중앙의 광장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인 지고노마이가 개최됩니다.

지고노마이는 전통 의상을 입은 7 세부터 12 세까지의 지역 출신 여자 아이가 춤을 불납하는 의식으로, 4 월 25 일 ‘마고미 축제’의 의식 전과 7 월 28 일의 다이다이 오카구라사이 축제 등 일 년에 두 번 상연됩니다.